

거룩한 새판짜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뉴스레터 News Letter 251호 주후 2021년 11월 10일(수)

‘Charting the New Normal, Moving beyond Restoration into Revival’

주님, 쓰임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도 간절하게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이 주신 달란트 받은 자로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은혜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자녀들 한명 한명 다 기억하여 주셔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특새 하나하나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사옵고 체험과 현실적인 것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판짜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두에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 생애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사장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새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새 때문에 우리 성읍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새 때문에 한국의 장래, 역사가 새롭게 집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특새 둘째날(11.9) 오정현 담임목사님 후집회 중에서

사진제공:뉴스네트웍스

TODAY'S PRAYER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 1 영가족들이 두 손을 들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에, 측량할 수 없는 응답의 대로가 활짝 열려 풍성한 추수를 체험하는 주님의 강한 용사 되게 하옵소서.
- 2 심 없는 구국기도회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살롬으로 대한민국이 보호받게 하시며, 기도의 강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어 부흥의 새 역사를 집필하게 하옵소서.
- 3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부흥의 물결이 글로벌 특새 참여교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서진 파트너십을 통해 1천개 교회 개척과 유령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설교 요약 On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

(욥 31:6)

폴 칠더스 목사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의 뜻대로 애통하고, 슬픔의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세 명의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 끝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2) **자신의 슬픔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제 아내가 유산의 아픔에도 나이지리아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는 고통에 시선을 두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3)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평화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채워십니다.

한 달란트 (마 25:14~30)

박성현 교수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동의 없이 중학교를 자퇴하고 야채가게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져 몇 달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달란트로 하나님의 선의를 왜곡할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시드는 것과 영원한 것을分別케 하셨습니다(벧전 1:23).

한 달란트로 다른 한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미국 고든콘웰 신학교에 진학하려 했으나 팔레스타인 난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버드대학교 박사, 고든콘웰 신학교 학장이라는 다섯 달란트의 이력이 있으나, 주어진 또 하나의 한 달란트로 도시를 살리고 사역자를 양성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흥 열전 On

유럽에서 온 복음, 유럽을 향하는 재복음화 열전



칼 귀츨라프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웨일즈 복음주의신학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온 이들은 유럽 출신의 선교사들입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방문한 선교사는 **독일 출신의 칼 귀츨라프(Karl Gutzlaff, 1803~1851)**입니다. 1832년 7월에 충남 보령 고대도에 약 20일간 정박하면서 한문 성경, 전도문서를 전했는데, 이때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유럽에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땅에서 최초로 순교한 개신교 선교사는 **웨일즈 출신의 로버트 토마스(Robert J. Thomas, 1840~1866)**입니다. 1866년 9월에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하며 전해 준 성경책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의 창설자가 된 이들(박춘권, 이신행, 이덕환, 박영식, 최치량, 이영태 등)은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이 거룩한 빛을 갇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에 웨일즈 복음주의신학교(WEST)에 사랑토마스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쇠퇴해가는 유럽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일으키기 위해 1,000개 유럽교회 개척 비전인 ‘복음의 서진’을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특새를 통한 선교사들의 회복 On



정한나 선교사(마케도니아)

‘거룩한 새판짜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을 특새가 은혜의 날 연속입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 새롭게 사역을 되돌아 보는 영적 계기가 됩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로 전인적인 회복으로 부흥될 것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이진호 · 장호빈
선교사(에콰도르)



특새를 통해 팬데믹 시대에 드리워진 영적 무기력을 극복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의 길로 나아가고자 우리 모두에게 새 소명을 주시는 꿈판짜기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나경우 · 김미정
선교사(탄자니아)



말라리아, 에이즈, 코로나 등으로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과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선교지로 향하기 전에 특새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특새에 탄자니아 영혼들이 대거 참여하는 꿈을 꾸어봅니다.

유럽 교회개척 On



스코틀랜드는 한때 복음으로 충만한 종교 개혁의 중심지였으나, 20세기 이후 크게 쇠퇴하였습니다. 20 스킴즈(schemes: 정부임대주거지역) 사역은 극빈층 주거지역에 2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까지 9개 교회를 개척했고 계속해서 개척

준비중입니다.

빈곤지역에 **영적 리더**를 세우고, 유니온신학교의 러닝 커뮤니티와 20 스킴즈의 자체 Ragged School of Theology를 통해 **목회자를 훈련**합니다.

현재 개척한 지역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약물, 알콜중독, 반사회적 행동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20 스킴즈 교회개척사역을 통해 스코틀랜드가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 번 '성령의 땅'으로 변화되길 기도해주세요.



스페인 교회개척 이니셔티브 (SCPI)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스페인은 로마가톨릭 국가이며 미신이 만연합니다. 스페인 교회개척 이니셔티브 SCPI(Spain Church Planting Initiative)는 사랑의교회 복음의서진의 교회개척 비전으로 2017년부터 동역한 세비야신학교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입니다. SCPI는 스페인과 지중해 분지(남유럽, 중동, 북아프리카)의 **다음 세대 교회개척자들을 위한 코칭, 격려, 파트너십을 위해 교회개척자들을 재정 및 영적으로 지원**합니다.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니 교회개척자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비야 신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총 다섯 가정이 진행하는 SCPI를 통해 주님께서 스페인 교회개척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이탈리아 로마 브레치아 교회 (Breccia di Roma)

로마 중심지에 위치한 브레치아 교회는 레오나르도 디치로(Leonardo Di Chirico) 목사가 개척하였고, 리더양성을 통해 로마 부근에 자매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현재는 바티칸 시티 근처에 교회를 개척 준비 중에 있습니다.

브레치아 교회는 유니온신학교의 러닝커뮤니티를 호스팅하면서 **이탈리아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여러 목회자들을 훈련**합니다. 또한 개신교 서적을 출판하여 **로마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하고 리더들을 양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절실히 필요한 로마가톨릭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루마니아 호프 침례 교회 (BBSO)



오라디아(Oradea)에 위치한 호프 교회에 크리스티안 소니아(Christian Sonea) 담임 목사는 **'복음전파와 제자훈련'의 비전**으로 루마니아 교회개척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바이아 마레 지역, 오라디아 등 루마니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성도 규모에 맞는 **교회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크리스티안 목사와 사역팀에 힘과 지혜를 주시어 성령의 지속적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주시고, 루마니아 정부가 교회의 필요에 우호적이도록 기도해주세요.



북마케도니아 신 마케도니아 프로젝트 (NMVP)

신 마케도니아 프로젝트(NMVP)는 100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으로 현재까지 마케도니아의 타운과 마을에 12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2개 교회를 더 개척하고 리더와 제자들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2020년말에 미르체 목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시면서 페트레 페트로브 목사가 NMVP의 새 리더십을 맡게 되었는데, 페트로브 목사님이 마케도니아 복음주의 교단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개척하기 위해 현재 훈련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글로벌 특새 간증 On



디누 모가 목사/리디아 사모
루마니아 파클리아 출판사(Dinu and Lydia Moga, Facila Publishing House, Oradea, Romania)

먼저 글로벌특새에 초청해주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형제자매들에게 감사사를 전합니다. **글로벌특새는 팬데믹 이후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데 큰 힘을 주었습니다. 특히 찬양과 중보기도는 세계 다른 지역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유럽에 있는 사랑의교회 파트너 교회들에게 말로 다 표현 못할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새는 주님 안에서 따스한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새를 통해 복음의서진 사역을 축복해주시고, 루마니아에 복음전파와 성경배포, 기독교서적 제작에 역사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랑의교회와 동역할 수 있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윌 세이보리 목사,
영국 웨일즈 소울교회(Pastor Will Savory, Soul Church, Neath, Wales)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교회 성도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라 부를 수 있어 큰 축복입니다. 글로벌특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자 특권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어렵고 낙심되며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 기간, 글로벌 특새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웨일즈와 니스 지역에 역사해주시길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수천명의 성도들이 기도와 파트너십으로 우리와 동역함을 아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사랑의교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림

1.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입니다.

2. 감사소개

*오늘: 찰리 스크라인 (런던 All Souls Church)

'사도바울의 위대한 기도들' (엡 3:18)

윤치영 (시드니 어노인팅교회, 살려내심의 저자)

'살려내심' (고전 1:18-25)

*내일: 카일 아이들먼 (Southeast Christian Church,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 (요 16:33)

헬렌 김 (아이티, DFI대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 43:19)

3. 주차 안내

교회주차장, 마제스타시티 지하 6,7층: 월요일- 금요일 2시 30분 - 7시 30분 까지 (이후 유료) GS파크 24: 2시 30분 - 7시 30분까지 (이후 유료), 성숙한 주차문화는 교회의 자랑입니다.

4. 특새 은혜게시판 활용

부흥의 현장인 특새의 은혜를 게시판에 담아두고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말씀 은혜게시판이 아닌 <특새 은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1) 금일부터 은혜게시판에 특새 은혜를 작성하신 성도님 중 200분을 선정하여, 영가족 한분이 후원하신 '프뉴마 마스크 파우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새판짜기' 관련 작성자에게는 다른 선물을 드릴 수 있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201-300번을 작성하신 성도님께서는 고도의 꿀잠을 도와주는 '특새 수면 양말'을 드립니다.
 - 3) 어제 후집회 '끝까지' 참석하신 후, 은혜게시판을 작성하신 성도님께도 '특새 수면 양말'을 드립니다.
- ※ 모두 남측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회 / 세계교회 성도님께서는 Sarang On YouTube 영상 아래 '더 보기란'에 나와있는 <글로벌특별새벽부흥회 연합홈페이지> 링크 globalrevival.sarang.org 를 클릭하셔서 성함, 교회 이름과 함께 받은 은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게시판

이눔아, 이렇게라도 은혜 받아라_이슬기

오늘 앉게 된 저의 자리 양 옆에 계시는 분들이 후집회까지 끝까지 계시서 나갈 타이밍을 놓쳐 처음으로 후+후집회까지 끝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후집회의 참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아침의 씁보다 그 어떤 맛있는 아침식사보다 꿀과 같이 달고 힘이 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눔아, 이렇게라도 은혜 받아라"는 주님의 강력한 손길에 그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저와 성도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_이영균(경북 요성교회)

봄에도 가을에도 은혜의 폭포수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몇 년 전 여름이 끝날쯤 정말 아픔 가운데 시집가도 될 듯째 평을 잃고 낙심한 저의 부부에게, 이 아침에 찰더스 목사님의 아픔을 크게 공감하게 하셔서 위로해 주시더니, 박성현 목사님의 말씀에 통해 주신 한 달라트를 사용할 수 있는 함도 기회도 은혜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특새 기간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영원한 소망으로 지역을 위해 애동하며 섬기게 하소서.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_박지현

후집회 완주 인증합니다. 담임목사님의 없는 사람 착으시는 은사가 한바도름 넘어 루마니아까지! 오늘 후집회 찬양 무한반복 하게 될 것 같아요! "주 예수! 내 산 소망!", 특새의 묘미는 후 집회지요. 끝날 듯 안 끝나고 은혜로운 마지막 찬양! 짹!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반응으로 태신자 작정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응답의 확신으로 기쁜 아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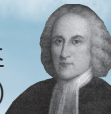
2021 특별한 가을특새_임은주

특새를 참석한지 이제 겨우 16년이 되어 갑니다. 또래들과 함께 추억을 쌓았던 특새의 경험이 엇그제 같습니다. 매년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매년 특새를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 매년 있던 특새가 이젠 어떤 환경에 의해서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인지 올해는 특별히 더 은혜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 여기있다" 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갑니다.

보화같은 주의은혜, 손지말고 담아두자

부흥 명언

조나단 에드워즈
(Jonathan Edwards 1703-1758)



부흥이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A. W. 토저 (Aiden Wilson Tozer 1897-1963)

부흥이란 긴 밤을 지나서야 탄생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몹시 원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존스

(David Martyn Lloyd Jones 1899-1981)



부흥의 첫번째 역사는 예외없이 사람들이 낮추어 그들로 하여금
조를 깊이 깨닫게 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절망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대하는 새판짜기는 _____ 이다.

왜냐하면 _____ 때문이다.

위 빈칸을 채워 <특새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은혜롭고 창의적인 글을 선정하여, 최우수상 10분께는 'Limited Edition 부흥 퍼즐'을 선물로 드리고, 그 외에 선정된 분들에게는 'Revival 키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다음세대



셋째날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옵소서

출석표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